

**대성전선(주)**

**베트남에 전력용케이블 생산공장 건립**

대성전선(대표 양시백)이 1440만달러(125억원)를 투자해 베트남에 연산 1500만톤 규모의 전력용케이블을 생산할 공장을 세운다.

대성전선은 이와 관련,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합작업체인 엔벤메카니칼사와 합작법인인 Dae Sung Vietnam Power Cable Co. 설립에 대한 계약서 조인식을 가졌다.

대성전선은 총 투자액 2400만달러 중 60%, 베트남 전력청 산하의 전기기자재 회사인 엔벤메카니칼사는 40%를 투자하게 된다. 공장은 하노이에 대지 1만평, 건평 5천평 규모로 건립되어 내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 연간 1만5천톤 규모의 중·저압 전력케이블을 생산할 예정이다.

대성측의 이번 베트남투자는 지난 '93년 하노이에 연산 2천톤 규모의 통신케이블 합작사인 비나대성케이블을 설립한데 이은 두번째 합작회사이다.

이로써 대성전선은 베트남의 통신시장과 전력시장을 모두 베트남의 우정국과 전력청 산하기관과 설립하게 되어 현지생산체제와 함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대성전선의 전력케이블사업 베트남투자는 지난 3년간에 걸쳐 대만의 대기업인 퍼시픽케이블사와의 결합 끝에 이룩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전기학회**

**'97하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전기학회(회장 변승봉)는 오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용평리조트에서 「97년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논문의 초록마감은 5월 3일까지이며, 최종논문제출마감은 6월 14일까지다.

특히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전기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 사상최대의 학술행사로 준비되고 있으며 日本, 中國 美國 등 외국학회 대표자들도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LG전선(주)**

**송전선로 감시용 네트워크 상용화**

LG電線(대표 : 權攸久)이 국내 최초로 초고압 가공송전선로 감시용 네트워크시스템을 상용화하고 국내 송전 구간에 처음으로 설치한다.

LG 전선은 최근 동서울-청원 구간 345kV 초고압 가공송전선로에 OPGW(광섬유복합 가공지선)을 이용한 송전선로 감시용 네트워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한국전력과 체결했다.

송전선로 감시용 네트워크시스템은 전력선과 송전철탑에 설치된 전용 센서

로 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단선이나 부식, 케이블 인장 등 송전계통의 이상 상태를 감시하고 사고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으로 산악지역 같이 사람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무인 지역에 설치된다.

이 시스템은 또 온도, 습도, 풍속 등 케이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중앙제어소에서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사고 발생시 이상유무를 즉시 발견해 신속한 사고복구와 선로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는 송전선로의 이상 상태를 순찰이나 육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 시스템의 개발로 일반 수용가에서도 고품질의 전력 공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LG전선은 지난 '90년 부산 구포지역에 영상감시를 포함한 154kV용 시스템을 공급한 바 있으나 345kV용으로는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한전의 송전전압 격상 프로젝트에 따른 765kV용 시스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전선은 자동차산업의 메카인 미국 자동차 부품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LG전선은 최근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전장품업체인 UTA(United Technology Associate)의 종별 규격을 승인받고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자동차전선을 미국 크라이슬러와 포드사에 수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전선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LG전선은 지난 '92년부터 UTA 승인을 추진해 왔는데 제품과 설비, 공장시스템 등 5년 동안의 엄격한 실사를 거쳐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LG전선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폴리에틸렌 재질의 자동차 내부 배선용 照射전선으로 지금까지 국

내에 공급하던 자동차전선에 비해 절연 두께가 65%밖에 되지 않아 자동차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LG전선이 이번에 크라이슬러와 포드에 수출하는 자동차전선은 200만달러 규모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센서케이블, 고무호스, 튜브 등 다른 자동차 전장품류의 미국시장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선은 미국의 자동차부품 시장진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UTA의 품질인증 시스템인 QS9000을 지난 3월에 최종적으로 승인받아 미국의 자동차 빅3 회사인 GM, 클라이슬러, 포드 등 완성차업체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서남아 진출 활성화 박차

지난 4월 1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 미얀마, 파키스탄, 인도 등 서남아시아 등지를 방문한 전기조합(이사장 : 李龍熙) 서남아시아수출촉진단이 상호 수출협력 및 정보교류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둬서 앞으로 전기공업계의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려중전기 등 「97 베트남엑스포」에 참가했던 8개 국내 전기기기 제조업체는 전시회기간중 146만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린 것을 비롯 1백여건에 달하는 합작상담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펼침으로써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베트남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을 밝게 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수출촉진단은 파키스탄을 전기전자사업자연합회와 상호협력 이해각서를 교환하는 등의 활동을 펼침으로써 파키스탄을 서남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데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촉진단은 파키스탄전기전자사업자연합회와 양국의 무역증진 및 정보교환, 회원사의 사업적 이익증진, 대표단교류 등에 대한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파키스탄은 우리나라의 전력관리 기술제공 등을 요청, 다각적인 진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수출촉진단은 미얀마, 인도 등지에서도 전력청 등을 방문, 이 지역에 대한 수출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이 지역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해외입찰 자율조정 협의회 구성

韓國 國電機工業振興會(회장 : 李喜鍾)는 국내 주요 개폐기(SF<sub>6</sub> 가스 개폐기)업체들의 해외입찰시 과당 경쟁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수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인식하에 업계 자율적으로 덤핑방지 등을 협의하기 위해 「해외입찰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 구성은 최근 중전기기업계가 동남아시아에 본격 진출하면서 국내업체간 출혈덤프경쟁으로 채산성 악화는 물론 제품의 질도 저하되어 우리나라 제품의 이미지 및 수출의욕을 크게 하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

진된 것이다.

동남아시아는 그동안 일본이 담합수주하는 방식으로 석권해 왔으나, 근래 5년전부터 우리나라업체가 참여하기 시작, 개폐기품목의 경우 시장을 주도하는 단계까지 성장했다.

특히 SF<sub>6</sub>가스개폐기는 완전 국산화를 실현하면서 수출유망품목으로 크게 부각되고 지속적인 수요창출이 기대되는 제품이다. 이와 관련 개폐기업체 대표들은 최근 동진홍회의실에서 앞으로 해외 입찰과 관련하여 업체간 과당경쟁이 예상되거나 협의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자율조정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 서명했다.

동진홍회는 이번 조정협의회 구성에 따라 국내업체간 공정거래풍토조성과 적정이윤 보장, 우리나라 제품의 대외 이미지 쇄신 및 수출촉진, 업체간 원활한 정보교류 및 대외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자율조정 분위기를 유도, 중전업계의 효율적인 해외진출전략과 수출촉진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LG 엘리베이터 쇼룸 「LG 엘리베이터 플라자」 개관

산전(대표 : 李鍾秀)이 지난 4월 23일 대치동 신안빌딩에 첨단 멀티미디어 방식의 엘리베이터 전문 쇼룸(Show Room)인 「LG엘리베이터 플라자」를 개관했다.

국내 최초의 엘리베이터 전문 쇼룸인

「LG엘리베이터 플라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시스템, 전자 카탈로그, 슬라이드 쇼 등 모든 전시 및 운영방법을 첨단화한 멀티미디어 쇼룸으로, 총 20억 원을 투입해 만들었다.

특히 고객이 원하는 엘리베이터 내외부 의장, 도어 디자인, 천정, 바닥재, 조작버튼 등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합성, 고객이 실제 제품을 미리 볼 수 있고, 선명한 화질로 출력도 가능한 '프리젠테이션 룸'은 선진업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LG산전 기술진이 12억원을 들여 개발한 이 시스템은 또 고객이 기존건물의 엘리베이터를 보수하거나 교체할 경우, 보수 전후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비교함으로써, 건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엘리베이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영업사원이 카탈로그를 들고 직접 고객을 찾아가 제품의 특징점을 설명하는 영업형태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고객과 영업사원은 「LG엘리베이터 플라자」에서 고객이 원하는 엘리베이터 내외부 의장을 포함한 모든 제품 사양을 결정할 수 있다.

또 LG산전이 그동안 국내외에 설치한 엘리베이터의 설치 실적과 구동장면을 다양한 화면과 함께 생동감 있는 슬라이드 쇼로 연출,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 밖에도 「LG엘리베이터 플라자」에는 엘리베이터 바닥재와 천정, 조작반, 도어 의장, 측판 등을 실물로 전시해 놓았으며, 엘리베이터고장 신고에서부터 처리까지 서비스 준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원격감시시스템과 대형 주차설비 모형을 설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LG産電은 초경량형 허리케인

100mm디스크 그라인더(모델명:G204)를 개발하고 이달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허리케인이라는 애칭은, 국내 1400억 원, 해외 6조 8천억원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매년 약 5%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전동공구 시장에서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강력한 힘, 월등한 성능, 편리한 구조」를 모토로 고속절단기, 그라인더, 충전/임팩트 드릴, 원형톱, 오비탈 샌더, 해머, 원형톱 등 8기종에 대해 지난 3월부터 고객의 품질검증을 거친 고품질의 제품에만 붙여지는 애칭으로 일반제품과는 달리 별도의 통일된 허리케인 제품만의 독특한 칼라를 적용하였다.

디스크 그라인더단 철재나 석재 등의 절단이나 용접전후 매끄러운 표면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전동공구로 조선, 중공업, 철구조물업체, 설비·배관공사업체 등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제품이다.

이번에 출시된 100mm디스크 그라인더는 순수 자체기술로 개발한 제품으로 기존제품에 비하여 무게가 약 400g이 가벼워(1.6kg)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높은 곳이나 연속작업 등 장시간 사용할 때 따르는 손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초경량임에도 출력면에서는 700W의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경량화와 파워를 모두 만족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간공학적인 설계를 적용해 몸체외경을 손이 작은 동양인의 체형에 맞게 56mm로 하여 잡기 쉽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석진 곳이나 낮은 곳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기어케이스를 최소화 하였고,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하여 원터치로 슷들을 교환할 수 있는 스핀들록 기능을 적용한 것도 장점으로 평

가 받고 있다.

**삼성항공산업(주)**  
**발전용터빈**  
**수리분야 진출**

一 星航空(대표 :李大遠)이 중대형 발전용가스터빈엔진의 수리 및 재생사업분야에 본격 진출한다.

三星航空은 최근 가스터빈 부품제작 및 수리전문업체인 美國의 크롬알로이사와 복합화력발전용 열병합용 가스터빈엔진의 수리 및 재생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 그동안 선진외국기술에 의존해오던 국내가스터빈 수리사업분야에 새 지평을 마련했다.

현재 국내에는 한국전력 민자발전소 등에서 50MW~1백50MW급복합화력발전용 및 열병합용 가스터빈 1백여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기술력 및 신뢰성이 낮아 연간 4백억원 규모의 부품수리와 재생을 외국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에 三星航空이 대형발전용 가스터빈 수리 및 코팅(Coating)분야에서 최첨단기술을 보유한 크롬알로이사와 전략적 제휴를 함으로써 해외에 의존하던 국내 물량을 자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내 복합화력발전용 및 열병합용 가스터빈은 GE社·웨스팅하우스社·ABB社의 제품이며, 三星航空은 이번 기술도입으로 이 제품들의 수리 및 재생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연간 3백억원 규모의 수입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